

“지도층에 대한 불신이 ‘이순신 열풍’ 불러”

컬처 & 피플

역사학자 이덕일

영화 ‘광해, 왕이 된 남자’, ‘역린’, 드라마 ‘정도전’의 공통점은 역사다. 최근에는 이순신의 명량해전을 소재로 한 영화 ‘명량’이 인기몰이를 하면서 대중들의 역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최근 이덕일(53) 한가람역사문화연구소장을 만났다. 그는 1997년 ‘당쟁으로 보는 조선역사’를 필두로 한국사의 쟁점을 그만의 관점으로 풀어낸 역사학자다. 1차 사료를 근거로 당대의 문제를 현대와 접목시킨 역사 해석은 기존의 고정관념을 깨뜨리는 새로운 시각을 보여줬다는 평가를 받는다.

이 소장은 영화 ‘명량’에서 촉발된 이순신 열풍에 대해 이야기했다. “이순신이 살았던 시대와 지금의 시대가 유사합니다. 우리 사회 지배시스템에 불신이 깔려 있습니다. 특히 무엇보다 사회지도층에 문제가 많아서 사람들은 이순신같은 인물을 그리워하는 겁니다. 이순신은 개인적인 능력이 출중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류성룡이라는 인물이 그를 발탁하지 않았다면 초야에 묻혔을 인물이기도 합니다. 이순신은 뒷사람한테는 당당하고 아랫사람한테는 자애로운 장수였죠. 요즘 시대에 이순신같은 인물이 나타나기를 바라는 것은 자극히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이 소장은 화제를 모은 드라마 ‘정도전’이 제작되기 전, PD와 제작진을 상대로 역사 특강을 했다. “사료에 바탕을 둔 정통 사극이 만들어져야 한다”는 공감 때문이었다.

“지금은 정도전과 같은 선각자가 필요한 때입니다. 민중의 불신이 임계점에 다다르면 역사의 물줄기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물꼬를 트기도 하지요. 우리 사회도 고려 말처럼 여러 어려움에 직면해 있습니다. 양극화는 날로 심해지고 주변의 정세 또한 매우 유동적이지요. 당시 소수의 권문세가들은 막대한 부를 누렸지만 다수의 민중들은 매우 궁핍한 생활을 해야 했습니다. 당시 농민들은 유랑을 하든지 권문세가의 노비로 전락하든지 양자택일을 해야 할 정도로 경제적 토대가 미약했으니까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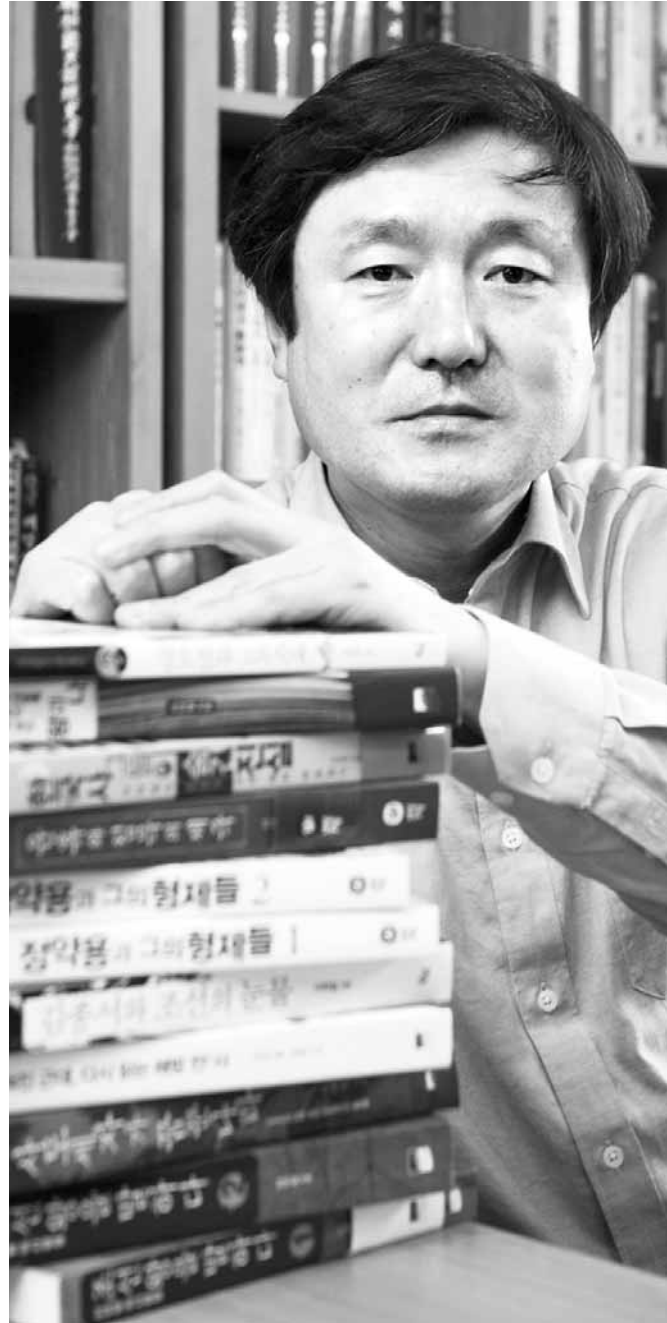
**“어지러운 시대, 정도전같은 선각자 필요
역사는 지배층의 오류 비판·견제 도구”
옳은 관점에도 왜곡된 한국사 재조명
‘당쟁으로 보는 조선 역사’ 등 40권 발간**

그는 인터뷰가 시작되자 달변가로 변했다. 전체적으로 유한 인상이었지만, 어딘가 모르게 강단이 느껴졌다. 역사 관련 저서를 40여 권이나 낼 정도의 내공에서 비롯되는 ‘부드러운 카리스마’인 듯했다.

이 소장은 역사를 바라보는데 있어 패자의 입장이냐 소수자의 시각만을 취하지 않는다. 패배 자체보다 관점이나 방향이 옳았음에도 제대로 조명받지 못하거나 왜곡된 부분을 파고든다.

“조선시대부터 내려오는 주류 사관, 특히 식민사관이 학계의 주류행세를 하고 있는 게 문제입니다. 일본 극우파로 대변되는 침략사관이 해방 이후에도 청산되지 않고 버젓이 통용되었던 거지요. 조선을 영구히 지배하기 위한 이론이 총독부 논리에서 나왔잖습니까. 이와 반면 당시의 독립운동가는 상당수가 역사학자였어요. 신재호, 정인보, 김승학 선생 같은 독립운동가들의 논리가 모두 역사학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사실은 식민사관이나 제국주의를 찬양하는 세력은 실정법으로 처벌해야 합니다. 독일도 모든 자유는 인정하지만 나치가 좋았다고 주장하는 이들은 처벌했습니다.”

그는 1차 사료와 역사를 바라보는 관점의 중요성을 수차례 언급했다. 그러면서 본질적으로 역사는 지배층의



관점으로 백성을 바라보는 학문이 아니라, 지배층의 오류를 비판하고 견제하는 도구라고 강조했다. 이 소장은 종교교 시절부터 역사를 좋아했다. 당연히 대학은 사학과(숭실대)에 진학했고 그때부터 ‘비주류 인생’이 시작되었다. 그렇다고 그가 대학 강단에 서려다 안 돼서 이 길을 가는 건 아니다. 일반적으로 박사학위를 받고 수석 권의 저서를 냈으면 교수가 되는 게 정해진 수순일 터인데 말이다.

“박사학위는 공적 시스템에 의해 전문가라는 공인을 받는 과정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처음부터 지금과 같은 자체 연구소를 설립해 공부할 목적이었다면 대학원 공부도 하지 않았을 거예요. 만약 대학이나 기존 제도권 안으로 들어갔으면 자체 검열로 지금과 같은 성과를 내지 못했을 겁니다.”

일견 타당했다. 우리 사회는 너무도 많은 ‘관’과 ‘인연’으로 이루어져 있다. 더욱이 학계는 스승의 학살을 뒤집거나 반대하고 대학 강단에 설 만큼 녹록한 곳이 아니다.

“역사를 공부하는 후배들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지배층이 아닌 민중을 보고 이 길을 가라고. 거친 밥도 먹고 외로움도 감수하면서 말이다. 제 경우엔 공부할 때 하루에 라면 3개, 소주 1병만 있으면 견디는 일념으로 버텼어요(물론 지금은 힘들겠지만) 누군가 특정 분야에서 성취를 하면 부러워하는데 하등에 그럴 필요가 없어요. 묵묵히 자기 길을 가다 보면 언젠고 그 길이 자신의 인생을 열어주니까요.” /서울=박성천기자skypark@kwangju.co.kr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이순신’에 미치다

영화 ‘명량’ 최단기간 600만 돌파...관련서적 전년비 54% ↑

평일에도 자고 나면 관객 수가 100만여명씩 늘어난다. 순천 출신 김한민 감독이 메가폰을 잡은 영화 ‘명량’이 개봉 7일만에 600만명을 넘어섬에 대한민국 영화 흥행사를 다시 쓰고 있다. 또 이순신 관련 서적의 판매도 늘어나는 등 열풍이 불고 있다.

영화관장권통합전산망에 따르면 ‘명량’은 4일 평일 최다 관객인 98만 6963명(매출액 점유율 73.1%)을 동원한 데 이어 5일 오전 9시30분 현재 누적 관객 600만명을 넘어섰다. 이같은 수치는 개봉 11일 만에 600만 관객을 돌파한 중전 기록 작품 ‘도둑들’보다 4일 앞선 기록이다.

영화계에서는 ‘명량’이 한국 영화 역대 최고 흥행작인 ‘도둑들’(1298만 3330명)을 제치고 왕좌를 차지할 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일단 ‘명량’의 경쟁작으로 꼽혔던 손예진·김남길 주연 ‘해적 : 바다로 간 산적’의 예매율이 5일 오후 6시 현재 5만 5000장으로 ‘명량’의 25만 6000장에 한참 못미쳐 늦어도 개봉 11일째인 주말께 1000만 관객을 돌파할 것으로 보인다. ‘도둑들’은 22일만에 1000만명을 돌파했다.

영화 ‘명량’에서 시작된 이순신 열풍은 서점가로 이어지고 있다. 교보문고에 따르면 이순신 관련 서적은 약 150종에 이르고, 판매량은 작년 지난해 1102권에서 올해 7월까지 1705권으로 지난해보다 약 54% 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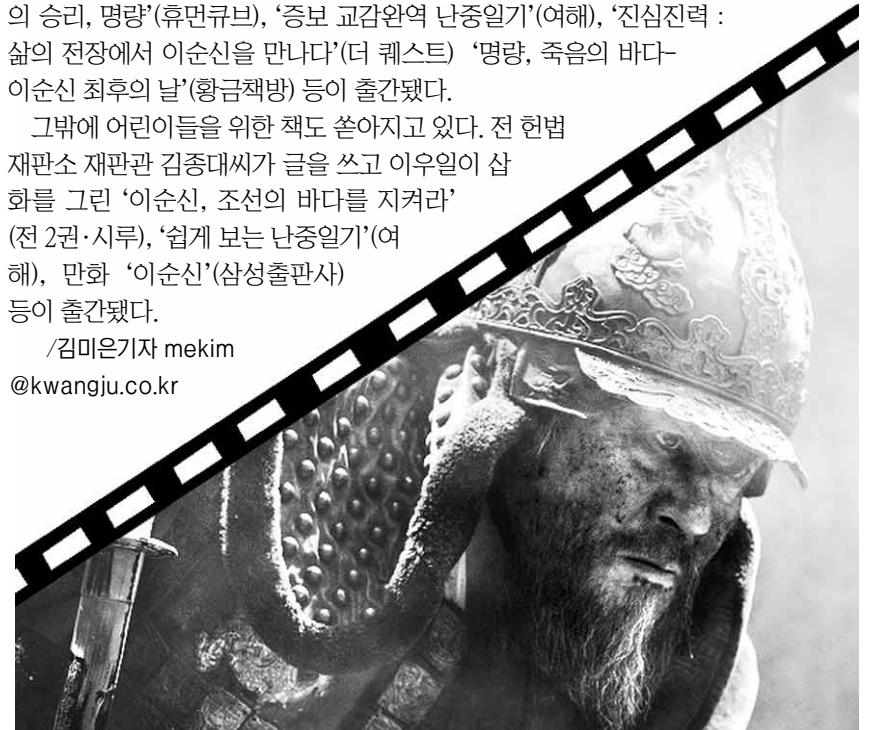
김탁환의 ‘불멸의 이순신’(민음사 전8권)은 16년만에 개정판을 나왔다. 평균 22%, 최고 시청률 33%를 기록했던 KBS 드라마 ‘불멸의 이순신’(2005)의 원작 소설로 화제를 모았던 책이다.

일인칭 시점으로 이순신의 내면을 그린 김훈의 ‘칼의 노래’를 출간한 문학동네는 지난 4일에만 700여 부를 출고했다. 평균 100여 권을 출고한 7월 초보다 7배나 늘어난 수치다. 또 명량해전을 다룬 박은우의 소설 ‘명량’(고즈넌)도 눈길을 끈다.

신작들도 쏟아지고 있다. 영화 시나리오를 소설로 엮은 김호경의 ‘명량’(21세기 북스), 회사원 김태훈씨가 쓴 ‘그러나 이순신이 있었다’(일상 이상)를 필두로 이순신 승리의 비결을 분석한 ‘불패의 리더, 이순신’(하늘재), ‘전쟁의 신, 이순신 기적의 승리, 명량’(휴먼큐브), ‘중요 교감원역 난중일기’(여해), ‘진심진력 : 삶의 전장에서 이순신을 만나다’(더 퀘스트) ‘명량, 죽음의 바다-이순신 최후의 날’(황금책방) 등이 출간됐다.

그밖에 어린이들을 위한 책도 쏟아지고 있다. 전 헌법재판소 재판관 김종대씨가 글을 쓰고 이우일이 삽화를 그린 ‘이순신, 조선의 바다를 지켜라’(전 2권·시루), ‘쉽게 보는 난중일기’(여해), 만화 ‘이순신’(삼성출판사) 등이 출간됐다.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가입문의 1855-0000



헬로tv, 세계 최초 UHD 방송 시작!

헬로tv UHD 방송 가입하시고 24시간 초고화질 세계를 마음껏 경험하세요!

-  **24시간 UHD 전용 채널**
유맥스(UMAX, ch.1)에서 다양한 UHD 콘텐츠를 시청가능
-  **UHD VOD 시청**
초고화질의 UHD 콘텐츠를 VOD로도 시청가능
-  **16만 편의 영화·드라마 VOD**
국내 최대 VOD콘텐츠를 보유한 헬로tv와 동일하게
-  **셋톱박스 없이 시청가능**
삼성UHD TV에서 스마트TV앱만 설치하면 셋톱박스 없이 시청가능

* 2014년에 가입하시면 가입 후 1년간 UHD 이용료가 무료로 제공됩니다. 단, 헬로tv UHD 상품은 '14년 3월 이후에 출시한 삼성의 UHD 스마트TV에만 지원됩니다. '14년 3월 이전 출시 상품 구매자께서는 삼성전자에서 판매하는 '14년형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시청가능하오니 이 부분은 삼성전자에서 문의주세요. (삼성전자 고객센터 : 1588-3366)



헬로tv UHD 방송이란? Full HD 보다 4배 이상 화질이 좋은 초고화질 방송 서비스

www.cjhellovision.com